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2030세대(정확히 보면 30세대 초중반)와 40세대가 다르다는 점이다. 그런 과거 캐스팅보터였던 40대보다 스윙보터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2030세대가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2030의 표심에 대해 민주당은 당황해 할 수밖에 없다. 과거 대부분 선거에서 2030은 40대와 함께 움직이는 동조현상(커플링-Coupling) 즉 40대가 2030을 이끌면서 세대 간 대결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다. 그런 2030이 지난 서울·부산 보궐선거에서 40대와 비동조화현상(디커플링-Decoupling)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립적 표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서울시장선거의 경우 방승3사 오세훈·박영선 후보의 득표율 예측조사에서 18~20대는 55.3% 대 34.1%, 30대 56.5% 대 38.7%, 40대 48.3% 대 49.3%로 2030에서는 오세훈이 앞섰다. 최근 정당지지도 조사를 보면 20대로 내려올수록 국민의힘이, 40대로 올라갈수록 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분명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난 총선까지 2030은 40대와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보였다. 그러기

20·30세대와 40세대, 디커플링 혹은 리커플링?

에 민주당은 이번 대선도 2030세대가 40대와 같은 표심이길 기대하고 있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두 세대 간 디커플링 가능성이 크다.

그럼 왜 2030과 40세대의 디커플링이 나타나는가? 2030과 40세대 중 누가 변했다는 건가? 그런 그렇지 않다. 2030세대는 단지 자신들의 경제적 절박함을 정치적으로 표출하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40대는 2030세대의 이러한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젊은 세대가 보수당을 지지하느냐며 핀잔을 준다. 그런 40세대를 2030은 '꼰대'라 한다.

IMF 이후 2030 즉 MZ세대는 저성장의 구조화라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여 대학 입학과 동시에 스펙을 쌓았지만, 탄핵했던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40대와 함께 지지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취업의 벽도 넘기 전에 주택 절벽을 마주하게 된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시장에도 제대로 진입하지 못한 2030과는 달리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40세대는 노동의 조직화된 힘으로 노동 기득권을 강화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정책의 편익을 누렸고, 늘어난 수입으로 주택을 마련하고 주식 투자로 재미도 봤다. 반면 40세대의 노동 기득권이 강화될수록 2030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었던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줄어들었고, 노무현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은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만 늘렸다.

2030과 40세대는 박근혜 탄핵 때는 공정과 평등이라는 생각이 달랐어도 탄핵이라는 말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평등·공정·정의 사회의 약속에 묶여있었다. 그

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동시장에 진입한 조직화된 노동 즉 40세대 중심으로 정책적 수혜가 돌아갔다. 문제는 노동시장과 사회적 재화는 한 세대가 과점하면 다른 세대에 돌아갈 것이 줄어들다는 점이다. 결국 2030은 이러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자각, 공정을 요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동맹이 분리되는 디커플링이 나타났다.

그럼 이번 대선에서도 2030과 40세대가 분리되는 디커플링이 재현될까? 아니면 다시 재결합되는 리커플링(Re-Coupling)이 될 것인가? 전망은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거에서 두 세대의 역학이다. 내년 대선에서 캐스팅보터는 과거와 달리 40세대가 아니라 2030세대라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이번 대선은 40세대가 아니라 2030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2030세대를 잡는 후보가 이긴다. 즉 이번 대선에서 두 세대가 디커플링이 재현되면 지난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보듯이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리커플링이 되면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

각 당에서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마치 취직할 첫째에게는 부모가 빚을 내 집까지 사 주는데 비해 아르바이트 하면서 취업스펙을 쌓기 위해 휴학을 하고 있는 둘째에게는 집 사는 것에는 아예 관심을 갖지 말라는 말과 비유된다. 과연 그런 부모 결정에 기반한 있을 동생이 있을까? 그래서 형제가 다르면 부모는 누구를 나무랄 것인가? 많은 지혜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결국 해법은 2030의 마음일 것이고, 그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표심을 결정할 것이다.

종교칼럼

김치를 붉게 물들이는 고추의 비밀



최현열
광주 연합교회 담임목사

이 세상에는 맛난 것도 많다. 그 많은 음식들 중 먹어 본 것보다 그렇지 못한 것이 훨씬 많으리라 여겨진다. 하지만 내가 맛본 음식들 중 단연 으뜸은 잘 절여진 배추에 금방 양념을 버무리 김장 김치이다. 그 속살을 푹 때어서 '아!' 소리와 함께 입에 넣어 주시던 어머니의 손맛 김장 김치는 감동 그 자체이다. 이제 어머니는 연세가 드셔서 그렇게 해 주시지 못하지만 매년 교회에서 김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다가가 입을 벌리며 받아먹는 나의 모습은 비록 목사지만 천진난만하던 어린 시절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얼마 전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댁에 들러 텃밭에서 제법 풍성하게 자란 배추 몇 포기를 가져왔다. 큼직한 한 부엌칼을 들고 밭에 나가 뿌리 쪽을 향해 썩히고 배어 내었다. 순간 재미있는 배추의 사연이 생각나서 미소를 짓게 되었다. 이 배추가 얼마나 푹하고 질긴지 이렇게 뿌리를 베어 내고 배를 가르고 짜잔 소금을 뿌려 숨을 죽인다. 그래도 숨이 붙어 있어 때문 고춧가루를 섞은 갖은 양념을 발라 긴 시간을 가뉘 놓고 땅에 물

어 뇌야 비로소 배추는 죽고 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김치를 장독에 넣어 땅에 묻어 두는 시대는 아니다. 집집마다 김치냉장고가 있어 얼마나 편하고 좋아졌는지 모른다.

가을걷이를 하고 나면 씨를 뿌려 여름내 더위와 싸우며 흘렸던 땀방울이 아깝지 않고, 김장을 끝내고 나면 곧 다가올 추운 겨울이 두렵지 않은 것 같다. 과거 조선 시대는 먹을 것이 풍부했던 때는 아니었다. 특이나 긴 기근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었고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힘든 시기를 견딘 백성들이 안타까워 임금은 쌀의 생산을 늘릴 방안을 만들라 하였고 학자들은 이양법을 개발하게 되었다. 쌀의 수확이 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쌀의 소비도 많아지게 되었다. 고된 일을 해야 하는 백성들은 많은 양의 밥을 먹어야 했고 찬들이 필요했다. 그 찬거리 중에 김치가 빠질 수 없었다. 그런데 그 김치가 오늘날 우리가 먹는 김치와는 완전히 다른 잔물레 절인 정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토종 배추는 지금의 배추와 다른 모양으로 포기가 풍성해지지 않는 알갱이 배추와 흡사한 것이었다고 한다.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풍성한 배추의 모양은 중국으로부터 전해왔다. 하지만 우장춘 박사에 의해 우리 토양에 맞게 품종 개량해서 현재의 배추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있는 배추이다. 밥을 많이 먹으려니 찬이 필요했지만 그것들을 많이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짜

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소금이 귀하니 그것 또한 여의치 못했다. 그러던 중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부터 고추가 들어오게 된다. 김치에 고추가 쓰였다는 기록은 1766년 '증보산림경제'라는 책에 처음 등장한다.

긴 역사 속에서 조상들의 찬거리로 쓰였지만, 김치가 현재 우리가 먹는 모습을 갖춘 건 불과 100여 년에 지나지 않는다. 소금에 절인 장아찌 형태도 긴 시간 먹었던 것이다. 김치나 김장이라는 이름은 그런 연유로 불리게 되지 않았나 싶다. 고추는 초기에 먹지 못할 독초로 불렸다고 한다. 그러나 소금을 대체할 양념으로 쓰이게 되었고 실로 그 역할은 대단하다 할 수 있겠다. 매운 맛도 맛있지만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이 붉은 색이 바로 그 고추의 역할이다. 거기에 저장성을 높이는데도 보탬이 된다. 또한 김치는 유산균까지 생성한다 하니 세계인이 '김치 없인 못살아, 정말 못 살아!'라고 노래를 부를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전파된 것은 고추를 사용한 김치의 역사와 비슷한 시기이다. 고춧가루가 들어가 알싸한 매운 맛을 내며 먹음직스럽게 붉은 빛을 띄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데도 일조를 한다. 그렇게 맛이 든 김치는 유산균까지 생성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붉은 보혈은 우리나라 역사와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많은 이들에게 장맛의 고추의 맛을 느끼게 하고 부정과 부패를 막아 내며 유익을 주는 종교가 되기를 바란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뻗뻗한 배추가 자기를 죽이고 맛난 김치로 변해 가듯 말이다.

기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이순신은 누구인가?



고광섭
목포해양대 해군사관학교 교수

지난 10월 26일은 424년 전 명량해전이 벌어졌던 날이다. 이날 해남과 진도 사이의 울돌목 해역에서 벌어진 역사적인 해전에서 이순신 휘하의 조선 수군은 열 배 이상의 해군력을 갖춘 왜 수군에 맞서 결사 항전으로 왜적을 대파했다. 이 불가사의한 해전은 '불멸의 해전' 또는 '명량대첩'으로 불리며 세계 해전사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명량해전은 수년 전 영화 '명량'이 1700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국민의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영화가 개봉된 해의 명량대첩 축제에는 개최 사상 최대의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루었고, 아산 현충사 방문객은 전년 대비 무려 30퍼센트 이상 상승했다는 기록도 있다. 영화 '명량'의 후광 효과가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의 숭고한 삶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

우리에게 충무공 이순신은 누구인가? 이순신은 조선의 바다와 강도를 불법 침입하여 온갖 만행과 분탕질

을 저지른 왜군들에 대하여 '섬나라 오랑캐' 또는 '간교한 적도' 등으로 칭하고 철천지 원수로 인식하며, 조선 바다에서 적을 쫓아내기 위해 임진왜란 첫 해전인 육포해전부터 노량해전까지 죽기를 각오로 싸워 나라를 구한 불멸의 영웅이다. 일찍이 이충무공 전서를 국역한 노산 이은상은 이순신을 추상적·관념적 애국심의 표적인 이상적 존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대적·과학적 방법에 의해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생동하고 실존되어야 할 존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금 우리는 2년에 걸쳐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424년 전 울돌목 해역으로 몰려오는 엄청난 왜 수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열세 척 전선으로 맞선 이순신과 조선 수군의 상황과 다를 바 없는 형국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일상생활을 포함해 사회 전반의 운영 체계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질서 속에 살고 있다.

적의 공격에 맞서 싸우면서도 한편에서는 공습에 파괴된 인프라와 시설물을 복구하고 조심스러운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형국인 것이다. 전시 국가 동원 체제 하의 비상사태이나 님몰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온 국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와 방역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생활하는 이유다.

이 충무공 연구와 정신 계승에 길잡이 역할을 했던 노산 이은상의 주장처럼 이순신은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찾는다면 이 시대의 이순신 같은 영웅은 누구일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팬데믹 상황 극복과 퇴치를 위해 불철주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의료인,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소상공인, 정상적인 생활을 반납하고 불편함을 감내해 온 보통 사람들이 오늘날의 이순신이라 해도 무리는 아닐 듯하다. 11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한 정부의 방역 정책도 이 시대 수많은 이순신들의 협조와 헌신이 낳은 결과라 본다.

우리는 수년 전 명량해전을 다룬 영화 '명량'을 보며 조선의 바다를 불법 침략하여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던 왜적들을 수장시킨 민족의 영웅 이순신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이충무공의 승리 해전 중에서도 명량해전이 으뜸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열악한 전장 환경 속에서 승리를 했다는 데 있다.

비록 방역 체계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일상도 녹록지 않을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해법 중 하나는 수많은 이순신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다.

社說

나주시 자문단 '부영 특혜' 위한 꼼수 아니길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지 용도변경 추진이 논란인 가운데 나주시가 '도시계획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부영골프장과 관련해 도시계획 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인 등 11명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구의 성격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에 부영골프장 잔여지의 용도변경을 5000억 원의 특혜를 안기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자문단 구성이 부영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꼼수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특히 부영골프장대형 시민협의회는 일단 전향적인 조치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자문단을 토지 용도변경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나 면죄부용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도 나주시의 자문단 운영에

의심의 눈빛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나주시가 부영주택에 보여 온 우호적인 태도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도교육청까지 나서 아파트 건설을 최소화하고 중·고교를 신설하는 등 공공 기여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 의혹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나주시는 토지 용도변경을 전남도에서 최종 결정할 문제라면서 행정절차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주시의 해명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주민 입장에서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들의 요구대로 자문단 구성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요즘 정부마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민간사업의 수익률을 제한하는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터에, 나주시의 자문단 구성이 부영 주택에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가 아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정치권 '호남 비하'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광주와 호남을 욕보이는 부적절한 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흉보하는 영상을 올리며 흉준표 의원을 빗대 '흉어준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흉어는 '일베'와 극우 진영에서 전라도와 호남인을 비하하는 혐오 표현의 하나다. 서 교수는 이 표현이 문제가 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린 뒤 "비굴한 변명을 하자면 영상의 섬네일(thumbnail)에 관여하지 않았다. 선거철이라 경계망동하지 말자고 생각해 글도 자주 안 쓰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다가 아니었다"고 사과했다.

문제는 혐오 표현으로 지역을 깎아내리는 구태가 특정 후보 캠프와 주변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다는 데 있다. 윤석열 국민 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최근 '전두환 찬양'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에 올린 이른바 '개 사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번에 논란의 중심에 선 서민교수도 윤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은 '의도적인 계산'이 깔려 있지 않나 의심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구태라는 것이다.

호남은 터무니없는 비난과 폄하로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았고 현재도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70년대 정치권에서 씨앗을 뿌린 맹목적인 호남 혐오와 갈등의 프레임이 21세기에도 독바섯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퇴행이 아닐 수 없다. 정치권과 그 주변에서 호남 비하 발언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는 개인적인 사과로 머물러 넘어갈 사안도 아니다. 구태를 답습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책임을 묻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은 지역감정 조장과 지역 혐오로 지지를 얻으려는 꼼수는 반드시 국민적 역풍을 맞게 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불계주'는 미국 메이저리그의 토론토 블루제이스 소속 강타자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의 약칭이다. 그는 올 시즌 아메리칸리그에서 홈런 1위(48개), 타율 2위, 타점 5위, 최다 안타 2위, 출루율 1위, 장타율 1위, OPS 1위의 불꽃같은 활약을 펼쳤다.

이름에 '주니어'가 붙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부자(父子) 선수로도 유명하다. 아버지 블라디미르 게레로는 홈런 타자에 발까지 빠른 호타준족(好打駿足)이었다. '괴수'라는 별명으로 통했던 그는 2002년, '40-40 클럽'에 홈런이 딱 하나 모자란 39홈런·40도루를 기록하기도 했다.

내셔널리그의 홈런왕(42개)을 차지하며 메이저리그 차세대 아이콘으로 불리는 샌디 에이고 파드리스의 타티스 주니어 역시 부자 선수다. 아버지 페르난도 타티스는 레전드급은 아니었지만 한국의 팬들에게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1999 시즌 박찬호를 상대로 한 이닝에 만루홈런 두 개를 빼앗은 이른바 '한판두'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메이저리그에서는 145년의 긴 역사만큼 많은 2세 선수가 배출됐다. 함께 된 부

자 선수는 총 255쌍. 그 중 큰 그립피 부자는 1990년 시애틀 선수로 나란히 타석에 나와 백투백 홈런을 터뜨렸고, 바비 본즈와 배리 본즈 부자는 돌이 합쳐 1094개의 엄청난 홈런을 쏟아 냈다. 부자가 모두 홈런왕 타이틀을 차지한 세실 필드와 프린스 필더는 약속이나 한 듯 각각 319개의 홈런을 치고 은퇴했다.

창설된 지 40년이 된 한국 프로야구에서도 많은 2세 선수들이 나왔다. 특히 올 타자에 발까지 빠른 호타준족(好打駿足)이었다. '괴수'라는 별명으로 통했던 그는 2002년, '40-40 클럽'에 홈런이 딱 하나 모자란 39홈런·40도루를 기록하기도 했다.

부자 타격왕

다. 키움의 이정후가 시즌 타율 0.360을 기록하며 타격왕에 오른 것이다. 이로써 아버지 이정범이 0.393이라는 무시무시한 타율로 타격왕에 오른 지 27년 만에 부자 타격왕이 완성됐다. 2세 선수들은 KIA에도 있다. 스무 살 클로저(closer) 정해영의 아버지 정희열은 1990년대 '타이거즈 왕조'를 일군 해태의 포수 중 한 명이었다. 1루수 유인상의 아버지 유승안은 원조 공격형 포수였다. 부자 선수들의 활약을 비교하며 보는 것도 프로야구의 특별한 재미일 것이다. /유재관 편집부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汝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월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경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